



## Movie Discussion Guide 사용설명서

Movie Discussion Guide는 영화를 본 후, 신앙적 관점에서 영화 읽기를 돕기 위해 문화선교연구원에서 제공해 드리는 토론자료입니다. 영화 목상토론을 나누신 후 필름포럼에 비치된 박스에 넣어주시거나 내용을 사진 찍어 연락처와 함께 문화선교연구원 메일(cricum1@naver.com)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필름포럼 영화티켓 혹은 서울국제사랑영화제 초청티켓을 보내드립니다.

### \* 방법

1. 영화 전체 줄거리를 되새겨봅니다.
2. 기억 나는 사건과 장면, 인물의 특징을 자유롭게 나눠봅니다.
3. '영화 돌아보기'를 읽고 '신앙적 관점으로 영화 토론하기'대로 나누어 보세요.
  - 영화를 혼자 보셨다면, 혼자서
  - 친구와 보셨다면, 친구와 함께
  - 참여하는 모임이나 신앙공동체에서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4. 모든 질문과 방식에 정답은 없으니 자유롭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 문화선교연구원을 소개합니다.

**VISION** 문화선교연구원의 비전은 교회의 문화선교를 도와 복음적 가치를 담은 문화를 창조하여 하나님 나라에 신실하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MISSION STATEMENT** 문화선교연구원은 교회의 문화목회를 위한 리더십을 연구하고, 다원주의 상황에서의 창조적 소통과 공적 참여를 위한 문화선교 전략을 개발합니다. 교회와 기독교 NGO, 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 창조적 문화선교를 실천합니다.

### MINIST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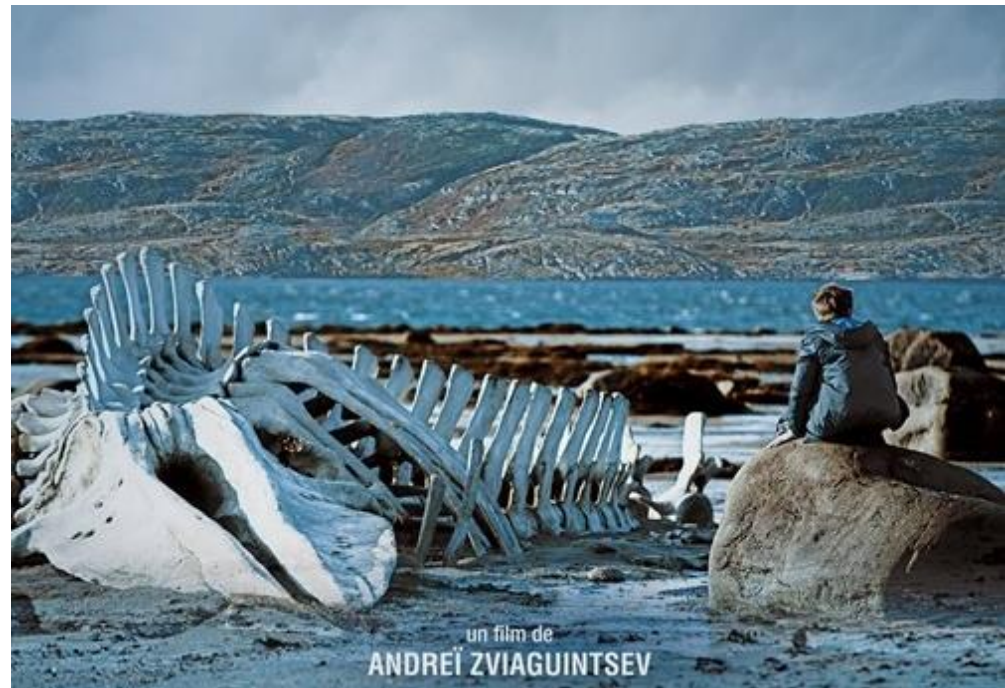
문화목회연구\_ 문화선교리더십, 창조적 문화 읽기, 기독교문화포럼  
문화 플랫폼\_ 작은영화관 필름포럼, 서울국제사랑영화제, Mars 프로젝트  
문화 네트워크\_ 기독교 NGO, 교회, 교육기관과 연대

영화, 함께 보고 이야기하자!

# Movie Discussion Guide

문화적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신개념 목상토론집

## <리바이어던>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27(대신동 85-1 하늬솔빌딩 A동 B1)  
www.cricum.org 02-743-2535

# 영화 <리바이어던> 돌아보기



## 신앙적 관점으로 영화 토론하기



감독 : 안드레이 즈비아긴체프  
출연 : 알렉세이 세레브리야코프(콜랴), 엘레나 랴도바(릴랴), 로먼 마디아노브(바담)

영화는 시대의 사회문화를 반영하고 사회적 의미를 생산해내는 힘을 가지고 있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화 '읽기'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 펼치며 '어떻게 살 것인지'를 묻는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다음의 질문을 통해 신앙의 눈으로 문화를 읽고 이야기 나눠보세요.

안드레이 즈비아긴체프 감독의 네 번째 장편인 <리바이어던>은 거대권력의 막대한 횡포에 맞선 개인이 얼마나 작고 무력해질 수 있는지를 잘 묘사했다. 미국의 '킬도저(Killdozer) 사건\*'을 모티브로 해 제작되었는데, 러시아 개봉 당시 '반(反) 푸틴 영화'라는 비난과 함께 일부 장면 삭제 요구와 검열제 도입 등 영화 속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영화이기도 하다.

영화 제목 '리바이어던(Leviathan)'은 철학자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의 1651년 저서 『리바이어던』에서 언급하는 강력한 권력을 가진 국가와 성경 욥기에 나오는 거대한 힘을 가진 괴물(성경은 리워야단으로 표기)과 관련이 있다.

영화에서는 바닷가 마을의 한 평범한 남자에게 닥친 불안이 서서히 그러나 단단하게 그를 옥죄어 온다. 일상을 지키려는 자와 빼앗으려는 권력의 대립을 큰 축으로 하며 한 개인의 삶에 지독하게 간섭하는 권력의 맨얼굴을 차갑게 묘사한다. 숨도 쉬지 않고 판결문을 읽어 내리는 법관에게 서서히 좁혀지는 카메라의 시선에 함께하면서 관객은 무고한 피고의 유죄판결에 동참하게 된다.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가득한 판결문은 그 어떤 이익도 제기할 수 없는 불합리하지만 완벽한 폭력이다.

영화를 보는 내내 사회가 보장하는 (혹은 보장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안전'은 과연 실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미란다 법칙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경찰의 '이해하겠나'라는 질문에 '아니요. 하나도 이해가 안돼요'라고 답하는 주인공 '콜랴'는 아마 그 안전의 실재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인물을 꼽는다면요? 그 이유는요?
- 오늘날 주변에서 벌어지는 불행한 일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해 기독교 신앙은 무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함께 보면 좋을 책. 고통과 씨름하다(토마스 룡),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필립 안시),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정의와 평화의 입맞춤 때까지(니콜라스 윌터스토프)]
-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습니다. 바울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 났으니 복종하라(로마서 13:1~7)고 말했고, 가톨릭 교회는 전통적으로 교회가 국가 위에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루터교는 교회는 정치에 수동적 입장을 취한 반면 칼빈주의는 교회와 국가를 기능적으로 구분하면서 국가를 종교의 규범과 지배 아래 두고 정치에 능동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올바른 국가와 교회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교회는 정치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 킬도저(Killdozer) 사건: 콜로라도 출신 용접공 '히마이어'는 시멘트 회사로부터 공장 부지 한 가운데 위치한 그의 가게를 팔라는 압력을 받지만, 모든 제안을 거절했고 회사는 히마이어의 가게 전체를 둘러싸는 담장을 설치한다. 히마이어는 여러 가지 제도를 활용하여 개인의 권리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개조한 불도저로 담장을 부수고 나가 시멘트 공장 건물을 무너뜨리고 자살한 비극적인 사건.